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發行所 株式會社朝鮮日報社

社說
英蘇接近과 極東問題
對日牽制의 路線

一

英國과蘇聯은 國體와 그歷史的傳統이 歐洲에잇서서 다른어떠한國家보담도 根本的으로 相剋相異한國家이다 前者가 皇帝의 權威로서 統治되는 立憲君主國이며 保守主義의 政治的傳統이 强固한 國家인데 對하야 後者는 푸로레타리아 獨裁下의 社會主義聯邦으로서 政治的經濟的 文化的諸傳統을 根本的으로 깨트린資本主義世界에 正面으로挑戰하는 異端的國家이기 때문이다. 그럼으로 이兩者間에는 何等의 協調도 友誼도업슬것이 理論的으로 當然하다. 事實上, 英蘇關係는 一九二四年初勞働黨이 政權을잡엇든 期間에 蘇聯政府를承認하야 一時 好意를 表示하얏든 以外에는 同年末콤인테른議長 지노비에프가 英國共產黨에 罷業을 指令하엿다는 『赤禍事件』以來繼續的으로 氷炭과가튼 非友好的關係로서 一貫되여나왓다고 볼것이다. 그런데 最近吾人은 이兩國間에 이러난 若干의關係의 變化를 認定할수잇다●

二

첫재는 海軍問題에잇서서 英蘇間의 協調의徵兆가 增加된것이다. 過般몬트르會議에잇서서 非黑海沿岸國의 다다넬스海峽通過制限을 反對하야 蘇聯代表와 正面으로對立되엿든 英國代表가 急角度로 一切를讓步하야 蘇聯側의主張을 容認한것은 英蘇海軍協定을 成立시기려는傍系의產物이엿거니와 果然 틀림업시 數日前에 三個月間이나 折衝하든 英蘇新海軍協定은 蘇聯의 特殊地位를 認定하야 大體로完了하얏다. 日本이 新倫敦條約에 參加치안는限은 蘇聯은 極東海面에잇서서 條約上何等의制限도 아니밧는다는것은 말할것도업서 極東에잇서서 英蘇兩國의利害相反하는 何等의支障도 업슬뿐만아니라 英國은 실그머니 蘇聯의極東海軍의 無制限的增强을 對日牽制의 意味로 願하는것임을 露骨的으로 表示한것이다.

둘재는 英蘇巨額借款의 成立을 들수잇다. 英國의 蘇聯에 對한巨額의크레딧트 設定은 一九三三年 世界經濟會議때에도 말이잇섯고, 그後도 屢次報道되엿섯스나, 英國資本家들의 反蘇氣運에 阻止되야 實現되지 아니햇든것인데, 去月三十日 英國商相런시만氏는 下院에서 對蘇一千萬磅(約一億七千萬圓) 融資를 正式으로發表하엿다. 이것은 蘇聯에서밧는注文의支拂을 保證하는 輸出크레딧트의形式을 取한것임으로 英國品을 蘇聯에파는結果가 될것이나 蘇聯에서는 缺乏한 英國의物資가 蘇聯에 大規模로 輸出되는結果, 蘇聯의軍事的 經濟的施設의强化에 寄與할것은 疑心할餘地가업다

三

再昨年의차베르크大會에서 콤인테른의 當時의書記長 마누일스키는 英國을 世界諸反蘇國家의 指導者이오, 黑幕이라고攻擊하야 兩國關係의最惡時期이엿다. 今日의英[illegible]는 結果에 잇서서는 蘇聯의 强化를 助長하는 友邦이되든한 感이잇다 外交關係의推移는 고양이눈과가티 도라가는 最近世界의 일임으로 이로써 英蘇關係가 根本的으로 接近되엿다고는 할수업서도 어떠튼 一定한 利害關係를 中心으로 하야 共通點을 發見하얏다는것은 指摘할수가잇다、共通點이란 무엇이냐? 두말할것이업시 日本에 對한相互牽制工作이다 英國이 極東에 對한 日本勢力을 蘇聯極東勢力의 强化에 依하야 間接으로掣肘하려는것은 一九〇四·五年日露戰爭에잇서서 차르露西亞의 極東에對한 勢力을 牽制키爲하야日本과 攻守同盟을 締結하엿든當時의 意圖와 彷彿한바이다、現世全世界에 널니領土를 保有하야 한곳에모든力量을 集中할수업는 老衰帝國英國은 歐洲에잇서서 佛國으로더부러 安全保障機構를 把持함으로써 歐洲及阿洲의 現狀維持를 企圖함과가티極東에잇서서도 언제나 强者를牽制키 爲하야는 언제나 이에對立된勢力을 돕는政策을 取한다。現在英國의 極東政策에 指摘되는 最大의障碍는 말할것도 업시 日本의 極東에잇서서의 [illegible]이다 [illegible]은 그것이 [illegible]化하기 까지는 그어느것이나 英國의 盟友가될수잇는것이다。歐洲大戰後에 米國과 協力하야 日英同盟을 [illegible]하고 日本의經濟的進出에 相應하든 英國이 極東情勢의 推移에 [illegible]因子가될 可能性잇는 蘇聯을 利用하려는것은 蘇聯으로서는 도한當然할[illegible]게 [illegible]利用하는바일것이다 [illegible]은 누르고저 日本과 [illegible]엿든 英國이 이제 日本을[illegible]기爲하야 蘇聯에秋波를 보[illegible]는것은 于蔑할은 紳士들이[illegible]이 아니지마는 그래도 [illegible]라커라도 한다는 現實[illegible]자 [illegible]外交의 [illegible]이[illegible]다。

政府軍主力艦二隻 叛亂軍을猛砲擊
叛軍側은防戰飛行機로爆擊
激烈한戰鬪遂展開

【탕지에르三日發同盟】 西班牙政府軍은 海軍의 精銳主力艦二隻을 動員하야 三日午後 西班牙南端 타리파港에 蟠居한 叛亂軍에對하야 猛射를 加하엿다 叛亂軍도 卽時 防戰飛行機 五臺로서 主力艦에 對하야 爆擊을 敢行하야 激烈한戰鬪를 展開하엿다 同地市民은 알헤시라스에 向하야 避難을 開始하엿다

在西各國外交團 續續佛國에 矢野公使만殘留

【東京電話同盟】 政府軍과 叛軍과 砲擊과銃聲中에 撤出되는西班牙動亂의 渦中에잇서서 矢野寬公使는 外交團最後의 一人으로 혼자奮鬪를 繼續하고잇다는 뉴ㅣ스가 公使自身으로부터 外務本省에達하얏다 動亂勃發된 七月十八日 西班牙駐箚各國公使는 續續佛國境에 갓가운 海岸산·세바스찬에 避難하고잇서서 矢野公使도 그곳에서 狂亂의 渦中에 휩쓸리우고잇다 公使가 動亂勃發直後 本省에打電한 第一報는 五日이나걸려 七月二十二日 겨우 外務省에 到着한채 消息이 斷絶되엿섯는데 二十七日 朝在마드리드 高岡二等書記官으로부터 倫敦經由로 『公使가 산·세바스찬에잇다』는 電報가 잇슴으로 外務省에서는 다시 巴里、倫敦、리스본附近의 公使館을 總動員하야 산·세바스찬과의 聯絡을企圖한結果 去二日公使自身으로부터 最初의 入電이잇고 繼續하야 三日다음과가튼 電報가到着하엿다

事件의動向은 아즉 豫斷을不許한다 政府軍의 奮鬪는 볼만하나 叛軍도 亦不讓하야 산·세바스찬은 全然 危殆에 瀕하고 各國外交團은 續續 佛國에 避難하얏다 余는 아즉 當地(산·세바스찬)에잇다 危險이 刻刻으로 追到됨으로 退去할수박게업슴을 [illegible]하다 이消息은 [illegible]과가티 外務省을 [illegible]식엿다 現在산세바스찬을 死守하고잇는사람은 公使外에 高田實二等通譯官 橫田一太郎書記生及 그家族이다

在西米國人撤退
米政府에서命令

【華盛頓三日發同盟】 米國政府는 三百西班牙在住 自國民에對하야 即時 撤歸하기를命하엿다 헐國務長官은 三日午後 新聞記者와의 定例會見에잇서 政府의方針을言明하야 左와如히 述하엿다

國務省은 西班牙駐箚大使及領事에게 訓令하야 西班牙在住米國人에게 即時國外로 退出하도록 警告하기를依賴하엿다 居留民이 今後繼續하야 國內에殘在하면 米國軍艦을利用하야 退去하기도困難하게 될것이다 따라서在住民이 指示에服從치안는 境遇에는 米國政府는 生命財產의 保護에任할수는업다

對外武器輸出에
白政府特許制實施

【부랏셀三日發同盟】 白耳義政府는 三日緊急閣議를 開催하고西班牙內亂을 契機로한 現下의國際政局에 對하야 檢討를加한結果 武器輸出의 特許制를 施行하기로 決定하고 左와如히 發令하엿다

今後政府의 特許가업는 限一切武器軍需品의 輸出을 禁止함

슈미트博士北極探險

【哈爾濱發】 軍事上產業上 重大意義를 가진 蘇聯北極航路의開設은 蘇聯學士院會員 슈미트博士를 局長으로한 北洋海路總局에依하야 着着 具體化되고잇는 中인데 哈府라디오報道에 依하면 去二十七日 슈미트博士一行은 알항겔스크港에 到着하야同日即時 碎氷船소브키에號에搭乘하야 라프레비프海까지의根本的再調査를 行하기로되엿다

電力國營案
實施上規定審議

【東京電話同盟】 電力國營案은 去七月三日 閣議에 頼母木遞相으로부터 提示된以來 이미 旬月을經過하엿스나 政府로서는 이에關한 何等의 態度를 決定하기不能할뿐더러 其原案에 對하여도 極度의 秘密主義를取하야 一般國民은 至大한利害關係를 가지고잇슴에도不拘하고 其具體的歸趨를 알수업기때문에 電氣事業者를 中心으로 國民間에生活不安에基한 反對氣運이 蔓延되려하고 더욱此等反對論의 大部分은 家庭에 立脚한것으로 眞正으로 遞信省이 企圖하는國營案의 眞相에 抵觸되것이 업슴으로 遞信省은 此等 지나친 反對論에 對 하여는 多大한 迷惑을 感하는 同時에 政府에서도 이러한 因循姑息의 態度를 繼續치말고 特히 本案은 他의 國策과달나 거이豫算을 伴치안는것임으로 速히 採否態度를 鮮明히하야 公然히 天下의輿論에批判을求할것이라는 意見이 有力하다 따라 一步政府가 閣議에서 決定한後는 遞信省은 如上의見地에서 널니衆知를 모흘意味로 事業者를爲始하야 널니一般部外者의意見을 聽取하야 參考로할目的으로 何等 恒久的接觸機關을 設置할 方針이다 卽其機關은 遞信省調査會等立案者側과 民間側 學識經驗等으로써 組織하야 國營斷行의 根本方針에對하여는 問題視하지 안흐나 其具體的方法에對하여는 實情을 尊重하는意味에서 어느程度까지 各方面의意見을 參考한다는것이 其主旨인데 政府가 閣議에서何等態度를 決定하면 即時 設置할것이나 國營의具體案에對하야도 爲先原案은 勿論 遞信省에 對하여도 立案한것으로 이에對하여도 盲目的으로 修正補訂을 同意치안흘것임으로 結局 施行規則 其他案의 實施上의規定을 審議하게될것이다

宇垣總督更迭과그波紋
南大將親任 陸軍部內는好評

【東京電話同盟】 南次郎大將의親任에關하야 陸軍部內에서는 大體로 好感을가지고잇다 卽朝鮮統治는 宇垣前總督이 在任하지오래고 其實績이 相當히 볼만한것이잇스나 今回 南次郎大將의總任을 보게되엿는데 國防上見地로보드라도 最近까지 現役에잇서 諸般事情에 精通한南大將을 總督에 任命한것은 가장適當한 銓衡이라고 생각한다 特히南大將은 現役勇退直前 關東軍司令官兼駐滿大使로 滿洲에잇서 朝滿事情에關하야 精通한點으로보아 相當히 期待를가질수잇는것이다

政務總監更迭辭令

【東京電話同盟】 朝鮮總督更迭과 同時에 左와如히 發令되엿다

任朝鮮總督府政務總監 從四位勳三等 大野綠一郞
依願免本官 今井田淸德

新政務總監 大野綠一郞氏經歷

【東京電話同盟】 新政務總監에內定된 大野綠一郞氏는 明治二十年十月 埼玉縣에서出生 浦和中學、一高를 거처 明治四十五年東大獨法科를 卒業한後 卽時 內務省에 入하고 香川縣理事官時代에는 朝鮮에 出張中 米騷動이 勃發하야 [illegible]히 辭任하엿든것이다 其後 內務省社會局書記官을 거처 第二部第一課長兼第二課長에 陞任、大正十二年 歐米各國에 出張하엿다가 歸國後에는 社會部[illegible]課長에 任命되엿고 다음에 德島 岐阜 兩縣知事 昭和三年 社會局部長等에 榮進、그리고 昭和六年 內務省地方局長에 昇任하고 同七年一月 齋藤內閣時代 長延連氏의 뒤를이여 警視總監에 轉하엿다가 某事件으로 말미아마 引責辭退하고 閑地에 잇다가 關東軍經濟顧問으로 渡滿、다음에 南關東軍司令官時代 長岡隆一郞氏의 뒤를 이여 關東局總長으로 南司令官과 名콤비라는 讚辭를 밧드니 今年三月 南司令官의 辭任에 附하야 [illegible] 東京에 잇섯다 同氏는 [illegible] 頭腦가 明晳하야 [illegible]로 [illegible] 今回마침내 四十五年組의 最初의 親任官을 [illegible]한것이다 그리고 明治四十五年組同期에는 林[illegible]理事 前[illegible]局長[illegible] 朝鮮火災社長石川登盛 赤十字社朝鮮本部理事長岡崎哲郞氏가 朝鮮에잇다

무엇이라고 只今 말할수 업다
今井田總監談

朝鮮總督更迭의 消息을 接하고 今井田政務總監을 訪問하매 總監은 如左히 말하엿다

그러케되엿나 時期는 明白치 안앗스나 지금 나로서는 아모할말이업다 後任이 누가될는지 그런것은아직 알수업다

總督更迭되여도 大異動은업슬듯
局長과知事級數人은勇退乎
若干人事更迭은當然

宇垣總督更迭事情

【東京電話同盟】 宇垣朝鮮總督은 過般渡東에際하야 廣田首相과 會見하고 辭意를表明하엿는데 當時後任問題에關하야 政府의意見이 一致되지못하엿슴으로 宇垣總督의辭任은 實現되지안코 [illegible]하엿든것이다 其後 朝鮮總督의 後任에對하여는 阿部信行大將을 推擧하는側도잇섯스나 陸軍部內에 反對意向이 强烈하엿슴으로 其後그대로解消되고 陸軍의八月 異動을待하야 更迭을 斷行하기로되엿스나 最近에이르러 宇垣總督이 正式으로 辭表를 提出하고 後任으로 鈴木莊六 阿部信行 南次郞의三大將을 推薦하엿슴으로 이에基하야 여러가지로銓衡한結果 南次郞大將을 推擧하게되엿다 그리고 宇垣總督의辭任理由는 二、二六事件과如한國軍空前의不祥事件을 惹起한것은 軍의長老로서의責任을負하지안흐면아니되다는 決意에基한것이다

總督更迭에 伴한 後任政務總監은 前關東局總長大野綠一郞氏가 確定的이 되여 總督、總監更迭結果는 當然總督府人事에도 異動이 豫想되게되엿는데 後任인 南總督에게 잇서서는 이미宇垣前總督의 施政에 기픈理解를가지고 過般二、二六事件에도 微動도안코 農村振興、心田開發의 物心兩方面의 國民的大運動及經濟產業各般의 效果는 認定되는바로 此等第一線에선 當局界中樞人物에 對하야 이러라 저러라말하지안흘것갓고더욱이過般來未曾有의大異動을行하야 新進有爲의 拔擢을敢行한 直後인만큼 南總督에게 [illegible]할러로 此際人事의大異動을 行하게되리라고는 豫想되지안는다 그러나 南總督이就任後 自己信念에 基하야 强力한 施政을 行함에는 多少의 人事更迭을 行함은 오이려 當然하야 이미 總督府局長級의 古參級으로입으로부터 勇進하리라든사람과 밋 健康其他事情으로 民間에드러가기를 希望하고잇는二、三知事도 잇슴으로 此等人物은 이번機會에 勇退할程度로그칠듯하다

南朝鮮遍歷紀行
智異山通路求禮 (二)
徐椿

南原서 一晝夜를 留하고 二十三日 午前十時에 自動車를 타고 求禮로 直行하는 路次를 取햇다。南原、求禮間은 約百里로 所要時間은 一時間半이다。

南原地方의 큰 재가 잇는데 그이름을 栗峙(俗稱밤ㅅ재)라고한다。이 재는 相當히 크고 또 峻險한 재다。이 재를 上下하는 自動車道路는 實로 羊腸九曲이다。가면은 갈사록 카ㅣ부 또 카ㅣ부요、해들을 조곰만 잘못 돌려도 自動車는 곳 脫線하야 千仞絶崖로 墜落될 危險이 잇다。이런 危險한 구비구비를 돌고 또 돌아서 上下하되 平地를 疾走하는것이나 조금도 다름 업시 하고 잇는 運轉手의 操縱術에는 敬服할수바게 업섯다。

栗峙는 相當히 큰 재다。모르기는 모르되 海拔三千尺假量은 無難하지 안흘까? 한다。絶頂에서 나려다보면 四面數百里의 大小山野가 다 眼界에 드러 오고、北으로 蛟龍山城을 등진 南原邑이 가물가물 나려다보인다。

栗峙라는 峙字를 보고 생각나는 말이어니와 이름에 峙字가 부튼 재는 어듸나를 勿論하고 다 相當히 놉고 峻險한 嶺이 아닌가 한다。이런 疑問을 품고 峙字를 字典에서 차저본즉 峙屹立이라고 註하고『산우뚝할치』라고 親切히 노앗슴을 보앗다。이것을 보아 峙字는 大嶺、高嶺、峻嶺을 意味하는것이 아닌가? 한다。

正午가 조곰 지나서 自動車는 求禮에 到着햇다。求禮支局長宣次奐氏그他여러분의 案內로 求禮金鍾璇氏의 私宅의 一室을 빌려 留하게 되엿다。

當日午後四時부터의 講演을마치고 그翌日인 二十四日에 나는 求禮人士들의 好意에 依하야 朝鮮三神山의 하나인 有名한 智異山에 오르게 되엿다。

智異山은 멀리 新羅時代로부터 有名한 山으로서 最近에와서는 朝鮮八景의 第三位의 稱을 듯게 되엿슴은 周知하는바어니와、이 有名한 智異山을 跋涉하는데는 求禮가 그 最便한 通路에 當한다고한다。

古來로 全羅道智異山이라고하나 道界上으로보면 智異山의入口以上은 慶尙南道에 位置해 잇다。그럼으로 慶尙道側으로부터 이山에 오르는 通路도만흐나 이山을 跋涉하는데는 全南求禮側으로부터 오르는것이 가장便利하다고한다。그一例를 든다면 智異山을 보는사람으로는 누구나 華嚴寺까지를 보지아니하다면 그것은 畵龍缺睛의 嫌을 免치못할것인데 이華嚴寺가 求禮로부터 가면 不過十五里에 自動車의便까지 잇다。그러나 慶尙道側으로부터 넘어와서 華嚴寺에 到達하려면 甚히 멀고困難할것이다。그他隣近의 勝地名刹인 泉隱寺、鷲山寺、燕谷寺、龍湖亭、水落瀑布、天壇瀑布、老姑壇、雙溪寺、七佛庵等을 求景하는데도 求禮가 그 最捷且便宜의 通路가 되여잇다고 한다。

二十四日午前八時 求禮人士高在淯、文彰會、姜大寅、朴俊東、朴德緖、鄭璟根、崔相文、金學九、宣太變、筆九氏와 同伴하야 自動車로 華嚴寺를 向하야 出發햇다。約十五分만에 到着햇다。華嚴寺는 三十一本山의 하나다。各處名刹大寺中에서 내가 求景한 範圍內의 大刹만을 가지고 比較해 보면 華嚴寺는 梁山通度寺 慶州佛國寺等과 그規模를 거이 가티할만한 大刹이요 建物、石塔、燈籠等을 有한것이 만흐나 歲久年深風破雨濫하야 頹落된 個所가 너무나 만흔것을 遺憾으로 생각할수밧게 업섯다。

그가운데서도 覺皇殿은 寺中最大의 建物로서 그外觀이 雄壯함은 勿論이어니와 殿의 內壁은 石刻大藏經으로 構成되여 一種異彩를 뭇하는데다。그러나 今日에 와서는 建物自體의 頹廢를 따러서 內壁의 石刻大藏經도 破片化하야 다시 蒐集을 볼수가 업시되엿다。覺皇殿은 目下重修中인데 工事費는 五萬圓이요 竣工까지에는 約四年이 걸린다 고한다。

高文爾氏는 華嚴寺까지에서 止하고 그대신 案內者 一人이 添加하야 나까지 合九人이 午前九時二十分에 老姑壇을 向하야 올라가기 始作햇다。

華嚴寺로부터 老姑壇絶頂에 오르기까지는 約二十里 길인데 石徑細路、傾斜가 險惡한데 沿道左右에는 樹林이 鬱蒼하고 溪谷을 지날때마다 淸流가 岩石에 부닥처서 白波를 날리면서 소리내여 흐름을 본다。

登登途中에 머리를 돌려서 下界를 보면 求禮市街와 그여페흐르는 蟾津江이 환하게 나려다 보인다。

老姑壇은 天王峰、盤若峰과 아울러 智異山三大峰의 하나다。老姑壇은 元來는 吉祥峰絶頂에 차아노흔 壇名이다。그러나 峰보다 壇이 더 有名한故로 峰名대신에 壇名으로서 吉祥峰을 代表하게 되엿다。吉祥峰의 絶頂 只今 老姑壇자리에 녜전에 新羅時代부터 南岳祠를 짓고 智異山神을 모시어 와다고 한다。그뿐아니라 이老姑壇은 亦是、新羅時代부터 佛教와 密接한 關係를 가지고 와다고 한다。그러기때문으로老姑壇은 그놉히로말하면 天王峰의 六千六百尺、盤若峰의 五千八百尺에 對하야 겨우 五千尺에 不過하나 有名하기로는 他二峰을 훨신 凌駕하야 自來로 人跡의 끈칠 날이 업섯다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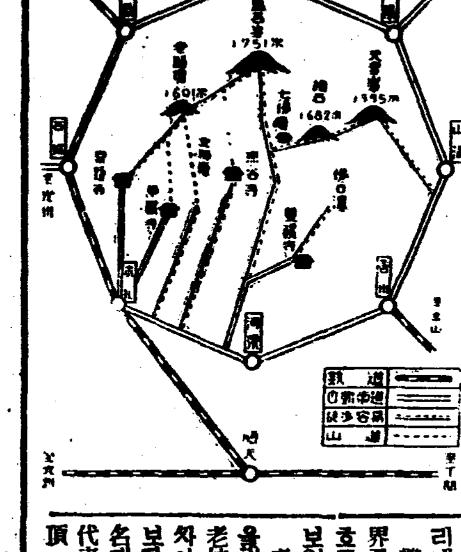
華嚴寺出發後 三時間四十分을 費하야 午後一時正刻에 老姑壇絶頂에 到着햇다。

案內書를 보면

『老姑壇의 頂上으로부터 眺望하면 盤若峰、天王峰을 主峰으로하는 智異連山을 東北으로 바라보며、西로는 無等山으로부터 全北平野를 바라보며、南은 多島海의 諸島를 一望之中에 納하며、天氣明朗할때에는 멀리 濟州島의 漢拏山을 相望하야 海光이 天空에 連接하는 雄大한 展望은 사람으로하여금 자리를 떠나기를 애끼게한다』

라고 씨워 잇스나 工夫히 濃霧大雨를 맛나서 咫尺을 分別할수가 업섯슴은 一大遺憾事이엇다。 (繼續)

朝鮮八景智異山探勝略圖



夕刊後市況 (四日)

◆大阪 短期 氣配◆

大新	六八三〇	(二〇高)
鐘新	一六〇七〇	(二〇高)
日產	七九三〇	(三〇高)
東新	一二五三〇	(一〇低)

◆橫濱 生糸 後引◆ 當限 七五八〇〇 先限 七六三〇〇

◆福井 人絹 後引◆ 當限 六三五〇 先限 六二三〇

朝光 八月號 定價三十錢 振替京城五八七八番

自由主義經濟의意義……徐椿
列國重壓下의日本貿易……韓普容
繭共同販賣問題……張元俊

그대그港口의追憶
元山港에남긴約束……
어린時節의仁川港……
釜山港의첫印象……
燈臺속의處女……
유ㄷ카의讚歌……
出帆前夜……
C港의一齣……

三大懸賞募集
○懸賞美術寫眞募集 入選每人前十圓씩 佳作 薄謝進呈 注意 應募枚數無制限
○懸賞小說募集 入選每人前卅圓씩 佳作 薄謝進呈 注意 每篇二百字原稿紙七十枚以內
○懸賞童話募集 入選每人前十圓씩 佳作 薄謝進呈 注意 每篇二百字原稿紙五十枚以內
應募期日 九月十日限
注意 應募한것은一切返還치아니함、萬一返還을要求할時는返信料를添付할것
揭載는朝光十一月號에 賞金은揭載同時에支拂함

◇現代佛蘭西音樂……金管
◇素人劇의指導……金二三
◇安南風俗……金永鍵
◇畵報及表紙 極美麗 ★

四百頁大雜誌
心頭雜草 貧과富……金石松
東洋의海島說話……鷲友山房主人

젊은하이델베르히의追憶
◇예나大學時代의假裝舞踊會……安浩相
◇白痴舍와白鬼舍……金璿
◇京都에三年……金煥泰
◇孤寂한피에로의獨白……李軒求
◇세人방찻는苦生사리……朴英熙
◇될다반湖畔의머슴사리……韓昇寅

癩……李榮俊
婦人病……朴大陽
童心……李永哲
朝鮮料理……

처음商業하는方法……韓昇寅
메터ー制實施와運轉手紛糾眞相……玄龍泰
人事消息●海外異聞各種

悲戀의妓生눈물의手記……崔玉姬

民俗과野談
◇社堂牌……白花郞
◇鄭古玉……申鼎言
◇徐、曹、吳、卜、權氏의姓氏로ㅣ맨스……秦春山人
◇節度使李澄玉……史外史人

李忠武公海戰記……車靑吾

隨想
一年남아기른花草……金永羲
어바러띄라偶草八種……卞榮晚
老人亭……李秉岐
消夏漫筆……翠雲生
文藝雜感……李箕永

심·고ㅣ리키ㅣ를뭄함……咸大勳
世界올림픽마라손豫想記……周王山

씨리아의獨立……金輸容
探偵小說 明眸有罪 李軒求
中篇小說 川邊風景 朴泰遠
短篇小說 薔薇 安懷南
短篇小說 술 金東里
中篇小說 저무는故鄕 姜鷺鄕
長篇小說 純情海峽 咸大勳
戱曲 姉妹 柳致眞
西南派對立과中國政情……李元坤
亞剌比亞의民族鬪爭 咸尙勳

내가잇지못하는 그江●그山
發賣中 京城府太平通 朝鮮日報社出版部發行

密輸隊四十三名 江中에서行方不明

滿洲國側稅關吏의暴行으로 昨日鴨綠江上慘事

【新義州支局電話】압록강을 사이에두고 안동현(安東縣)과 신의주의 량대 국제밀수도시에는 항상 밀수사건으로 강상에서 세관리와 밀수군간에 큰란투가 이러나는일이 만흐든 루보한바와갓다 사일오후한시경에 신의주부 마전동(麻田洞)에 사는 리명수(李明洙)(三七)외 구십명의 밀수대는 인견과 모사(毛絲)등 사천여원의 밀수품을 배세척에다가싯고서 안동현으로 건너가다가 안동현 만주국 세관리에게 발각이되자 모다 신의주측으로 도망하야 신의주측 압록강 제이 수문에 이르자 세관리들은 추격하여 독기와 단도로 밀수군을 란자(亂刺)하자 전부 강으로 뛰여드러 갓섯는데 이부근은 압록강중에서 가장 기픈곳이라 오십여명은 헤여처나오고 남어지 사십삼명은 물에빠진채로 행방불명이되야 빠저죽은것으로 보인다 또 세관리는 배세척을 억류하는동시에 오륙명의 밀수군을 잡어가지고 안동측으로 건너갓다 세관리가 폭행한 장소가 조선측쌍으로서 국경을넘어 이와가튼 폭행을 감행한것이니만치 조선측 당국은 이에대하야 어떠한대책을 강구할는지 비상히 주목된다 【以上號外再錄】

廿三名屍體發見

廿名은尙今行方不明

【新義州支局電話】별항 압록강 한바다에서 밀수단(密輸團)과만주국세관리들사이에 피비린내나는 충돌이이러나서밀수단 구십여명중 사십삼명이 행방불명되는 대참사건에대하여 그후 밀수단의 하주(荷主)인신의주부 매지정(梅枝町)구번지 소화양행 주인 리창원(李昌援)이가 이참보를 밧고 바로 달려가 시각을 지체치안코 수십명의 인부를 푸러서 강속을 샅샅치 수색한결과 가튼날 오후여덜시현재로 ▲金正玉▲李明周▲金松竹▲吳新斗▲鄭仁鎬▲李龍憲▲白常桂▲蔡相灝▲文基仲▲趙龍秀▲李元雲▲朴常鎬▲朴成彩▲金鎭明▲白龍楨▲李大煥▲鄭尙憲▲崔承淳▲孫炳涉 등열아홉명의 성명을 알수업는 네명등 도합스물세명의 시체는 건저내엿스나 남어지 스무명은 아직도 행방불명이된채로 남어잇다

이공전의 대참사로인하여 압록강은 때아닌 난리판을 이루고잇는동시 그들의 유족들은 남녀로소할것업시 달려와 시체들을 각각붓들고 땅을 두들겨가며 호곡하는정상은 실로처참하여 보는사람의 고개를 돌리게 하고야말엇다

空前의慘變에 當局은無策

曖昧한態度를表示

【新義州支局電話】이압록강 유사이래에 처음보는 대참변발생과동시 평북경찰부에서는 이제껏 이러타할만한 활동을 볼수 업고 단지 신의주 경찰서에서 형사두어명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고 잇슬뿐으로 긔자는 이에대하여 평북도청으로 경찰부장을 차즈니 그는 마침업고 안전(安田)고등과장이 대신해서 『자긔는 금시초문으로 아직어떤 조치를 취하겟다고 단독으로 언명할수 업다。』고 긴말을 피하고잇다

그리하여 다시 신의주세관장(稅關長)을 차즈니 씨역시맛침출타하고 본향(本鄕)감시과장이 대신해서 다음과가티 말한다

『그런 사실은 알고잇스나 구태여 항의할필요를 늣끼고잇지안흠으로 아직 어떤조처를 취하겟다고 태도를 『정하지안헛다。』

某誌記事에 反駁聲明書

佛敎靑年總同盟에서

시내 수송동(壽松洞)조선불교청년총동맹(朝鮮佛敎靑年總同盟)에서는 지난번 시내에서 발행하는 모잡지칠월호와 모시보(時報)제삼십팔호에 불교신도들을모욕한 글이 실리엿다하여 이것을 분개하고 나흔날반박적성명서를 발표햇다 한다

梁山에又豪雨

河川增水로兩村落은浸水中 住民은家具收拾避難

【釜山支局電報】사일오전여덟시부터 폭풍우가습래하야 량산(梁山)부근의 전답이백여정보가전멸하엿다 그리고 량산천의 증수로신기(新基)와 북정(北亭)량부락이 침수되야 주민은 가구를 수습하야가지고 피난중이며 량산부근일대주민은 공포에싸혀잇다

電柱가倒壞 電信電話不通

咸安水組堤防도念慮

【咸安支局電話】긔보=호우로말미아마 전답침수의정보의 큰피해를내인 함안(咸安)지방에는 다시 나흔날 오전아홉시부터 큰폭풍이 이러나기시작해서 전선주가 쓰러지고 전선이 끈허지는통에 전화가 불통되엿는데 인축에피해가 잇고업는것은 방금조사하는중이라 그리고 함안수리조합의 제방은 증수하고잇는중이어서 경계를 엄히하고잇다

傷人騷動

나흔날오후 다섯사람부상

나흔날오후다섯시경부외 서독섬(西纛島里)에사는 최명인(崔命仁)(三)과 그외동무세명이 동리사람허모(許某)의 사랑에서 작란하고잇든것을 그근처 번지에사는 손이출(孫二出)(二)과 번지에사는 ... 집하고잇든것을 그근처 ... 원의 수를 ... 동일(東一)리런

거스름돈詐欺

仁川米店에突現

【仁川】지난사일오후 사시경인천부 용강정(龍岡町)사십일번지 창평미전(昌平米店)에 나히약삼십세가량되야보이는 청년한명이 와서 상미일부대를사후 대금은 자기집으로가서 지불하겟스니 십원짜리 바꿀것이업스니 거스름돈칠원가량을 가지고가자한후 점원을 압세우고 동일(東一)리런가 목까지와서는 자기는 무엇을좀사가지고가겟스니 거스름돈을 나한으로 안심하고준후 점원은 압서서두어간쯤가며 뒤를도라보니 ... 기다렷스나 종시오지아니함으로 소맛친내 그제야 속은줄을알고 소관파출소에 고발하여왓슴으로경찰에서는 방금범인의 행방을엄탐중이라한다

金光川改修가 死活問題

金海邑水害源本

【金海】금번폭우로인하야 김해읍이제일참상을 당하엿다는것은 루보한바이나 김해읍 담복리(潭谷里)동리부판을 중심하야 흐르고잇는 금광천(金光川)은 본시는 길히가 구척가량되여 과거에잇서서는 아무리폭우가 나리여도 금광천이 범람하는때가 업섯스나 금번미증유의 폭우로 금광천발원지인 금광산골작(谷)이빠지는 동시에 산골작이 문허진 토사(土砂)는 전부 금광천에쏘다저서 금광천상하천부는 토사에 다막히여옛날구척의 길히가 되든 내바닥은 현재도로보다도 놉하저서 금광산골에서 나리는 물은 전부가 담복리민가에 침수되고잇는바 이에대한 공사를 하로라도 지연하엿다가 압흐로는 조고마한비만 오더라도 김해읍전부는 수국이 되리라는바 이공사가 완성되기전에는 읍민전부는 조이는 가슴을 잠간이라도 노흘수업는바 읍당국에서도 제일로보시하고 지금진정을 총독부에 다전하야 금광천개수비(金光川改修費)를 보조청구하엿스나 적우간이 위험성이잇는바 만여명의 김해읍민은 당국자의처사를 주목하고잇다한다

小作爭議의趨移

團體運動의形態는消影이고 그反面에個人紛爭이激增

조선의 조작분쟁은 농지령(農地令)이 시행된이후 그전과는 전연그취지를 달리하야 종래의 단체쟁의(團體爭議)와 소작료(小作料)중심의 분쟁은 거이업서지고 그대신 소작권을 싸고 지주와 소작인간의 개인적분쟁이 비약적으로 격증하여젓다 작년도에는 이런종류의 분쟁이 이만사천건을 너머서 초긔록이라고 하엿는데 또 금년에 들어서는 상반긔중에 발서 이만오천건을 넘는 상태이다 그해결상황을보면 그반분은 법외(法外)조정으로 해결되고 소작료에 관한것은 일할에도 못차고 단체쟁의라고 볼수잇는것은 절무한 상황으로되여잇다

穀物檢査官中心 瀆職事件豫審終結

【釜山】일시 세상사람들의 주목을끌든 조선총독부미곡검사소 부산지소(米穀檢査所釜山支所)검사감독관 통목융일(筒木隆一)(三〇)외 검사관두명에 관한독직사건과 부산부내 일본정미업자사인에관한 증뢰사건은 작년십일월에 부산경찰서에 검거되여금년정월초순부터 부산지방법원길천예심판사(吉川豫審判事)가 심리하여오던바 지난사일에 예심이종결되여 동법원공판부에회부되엿는바 그들검사관들은 소화십년이월경부터 동팔월경까지에 부산남빈정(南濱町)과 동래온천장(東萊溫泉場)등의 료리집에서 정미업자들로부터 십여차나 향응을밧고 미곡검사를 부정하게 한것이라한다 그공판에 회부된 피고의 주소씨명죄명은 다음과갓다

瀆職罪 米穀檢査所釜山支所 檢査監督官 筒木隆一(三〇) 檢査官 神戶傳八(四〇) 同 森田國義(三九)

贈賄罪 森本精米會社 代表社員 森本良峰 加藤精米會社支配人 友松 淸水精米會社支配人 松井 森本精米所支配人 梅本

妙齡女出家頻頻

仁川署에搜査願

【仁川】남편이실타고 출가하는 여자의 사정도가지가지천사리실을 허서 집나간녀자 봉긔율 인천부(仁川府)화정(花町)에두고 부평군(富平郡)주남면(朱南面)석정리(石井里) ... 신리(新里) ... 김정순(金貞順)(二二)은 향상남편과가튼 떳떳한 생활을 계속치못하고 처생활에 못 사람의손끄락질과 회제거리가되여잇는것에 불평을품고 지난삼일밤을타서 어데로인지 종적을 감조고 말엇다하야 그의 남편은 부모지인 인천서에 수색원을 제출하여왓다

▲남편이무서워집나간녀자ー인천부 ... 정부외장의리(長意里) ... 최백대(崔百大)(三七)는 도한 지나간일자 내에 어데로인지 나가고 말엇슴으로 그남편은 인천서에 수색원을 제출하엿다는데 풍문에 의하면 변소하관계로 임원한 부부생활을 할수업슴으로 남편을 항상무서워하든끄테 결기와가티 출가하고마것이라한다

管內十三萬餘名에 赤痢豫防內服藥

鍾路署의徹底한防疫陣

작년은 장질부사 금년은 적리(赤痢)! 칠월말까지의 루계 이백사십명이란 만흔 적리환자를 낸 시내 각서에서는 지금강력의 방역진을 느리고 맹활동을 계속하고잇스나 이무서운 전염병의 긔세는 조금도 주려지지 안는다 시내 종로서에서는 여긔에대한 적극적대책을 강구하기위하야 사일 오후한시부터 관내위생조합총회를 본서에서열고 오후 다섯시까지 장시간 협의를 거듭한결과 이달십이일경부터 말일까지 관내인구 십삼만여명전부에게 적리병예방내복약(赤痢豫防內服藥)을 복용케하는동시에 관내각정에 파리잡는 조히 일만매를 추첨으로 배부하야 철저한방역에 맹활동하기로 사십삼명의 정총대의 의견이 일치되엿다는데 이번 내복약은 전례에 비추어 정여원이나 위생조합연원과 각파출소순사 렴회아래 말하자면 강제적으로 복용케 하야 철저한효과를 긔하기로한다는것이다 배부가는 이십전을 십오전으로 할인제공케하며 극빈자에게는 무료배부케 되리라고한다

白頭山探險登山前記

旅窓에서瞻謁하는 雲上白頭의聖姿

【茂山에探險第一陣、無風快晴의好天候】

四日茂山에서 本社先發隊 李相昊 發電

백두성산(白頭聖山)탐험=한달동안이나 꾸준히 계속하여오든 계획도 드듸여 오날은업시 모든준비를 마추고 마음을 조려가면서 바라고고대하든 그날! 우리 선발대는 본대보다 한거름압서 삼일오후 세시오십분 용약희망에 가득찬장도에 올랏다 사원들의 열렬한 전송을 바드며 경성역을떠난지 무릇세시간! 우리를 태운렬차는 잇는 속력을다하야 삼방고원(三防高原)지대를 달리다 창바그로 멀리비치는 라조(落照)는 무엇이라고 형언할수업시 장엄하다 백두령봉의 꿈을꾸면서 무더운하로밤을 새이자 동해바다 저쪽에서 소서 올르는 아츰 해ㅅ발은 일망무제(一望無際)가 이업는 망망한 바다를 찬란히 물드리여 그장관은 마티 우리들의 전도를 축복하여 주는듯하다

☆

경함본선(京咸本線) 고무산(古茂山)역에서 지금까지 타고온든 긔차를 버리고 백두산동쪽 기슭에 잇는 다만 한개의 자그마한 시가지 무산(茂山)으로 가는 경편철도에 몸을 실엇다 이근처 이곳 저곳에 삐죽삐죽 소서잇는 웅장한 산봉오리와는 정반대로 작난감가튼 이경편렬차는 재롱스럽게 죽을 힘을 다 써가며 세시간 나머지나 해발(海拔)일천칠백『메돌』이나 되는 차유령(車踰嶺)을 마치 『알프스』등산철도와가튼 양장(羊腸)『코-쓰』를 다룸질처서 겨우 목적지인 무산역에『골인』하니 때는 오전열한시 사십사분이엿다 여기까지 마저주는 본사지국장 홍남의(洪南義)씨와 유지제씨의 열렬한 환영을바드며 원긔왕성하게 려관에 나그내의집을풀어 백두영봉탐험의 제일진(第一陣)을펴다 이곳은 수일전까지 비가 실토록 몃츨동안이나 계속하엿다하나 이삼일전부터 날세는 맑게개이여 지금은그야말로 글자그대로 쾌청일긔이다 이러고보니 몹시 염려하엿든 등산긔간중의 날세도우리를 축복하는듯! 멀리구름밧게 성스럽게 소서잇는 백두령봉은 아름들기대리는자부와가튼 에뀻는마음으로 우리대원을 기대릴것이다

全朝鮮就學兒童 七十六萬一千名

조선내에서 학령아동의취학희망자는 매년격증하야 지난삼년간의 재학아동은 매년칠만이정도의증가를 보이고잇는데 총독부학무국의조사에의하면 소화십일년사월현재 전조선공립보통학교재학아동은

男子	六〇〇、六六三人
女子	一六〇、五七一人
計	七六一、二三四人

으로 전년에비하야 칠만팔천일백팔십이인의 증가를 보이고잇다 그리고 금년에새로 입학한 아동은십륙만칠천사백이십오인으로 입학지원자 삼십이만구천이백륙십삼인중에서 선발되엿으로취학률은오할팔부정도를 보이고잇다 또한 전년도의 지원자급취학아동수 비교는 다음과갓다

	十一年	十年
志願者	三二九、二六三	三二一、九二〇
就學者	一六七、四二五	一四三、六六八

新京↔東京間 超快速〃따이아〃

四年後의短縮計畫

【東京電話同盟】오는 일천구백사십년 동경(東京)에서 열릴세계올림픽대회때에 세계각국으로부터 모혀들관객들의 편의를 도웁기 위하여 일본、조선、만주 세철도가 공동해서 대대적으로『스피드업』을실시하기로되엿는데 이보다압서 국철(國鐵)에서는 이천만원의 예산으로 이예산은 사년동안 계속사업으로 이관문(關門)터널공사와 병행하여 산양선(山陽線)의 개량공사를 하기로되엿다고한다 이것이 완성되는때에는 산양선만으로도 두시간반이나 단축이될것이오 다시 동경—하관(下關)사이의 『따이아』를 개정해서한시간이나 단축을 보게될터인데 이리되다면 현재 열여덜시간반을 요하는 국제렬차『부사(富士)』는 열다섯시간이라는 초쾌속을 보이게될것이다。 다음으로 조선측에서는 부산―안동(安東)사이를 세시간반이나 단축시켜서 현재열여섯시간반의 계획을하고잇는터이므로 이것역시 실현되는때에는 만철(滿鐵)쪽에서도 자극되여 당연히 〃스피드·업〃을 실행하고야 말것이다。 그리하여 세철도가 〃스피드·업〃의 공작을 완성시킨뒤에는 현재 쉬흔세시간을 요하는 동경―신경(新京)사이가 스물네시간의 경이적 단축을 보게될 모양이다

東京올림픽開催 通信連絡이問題

【東京電話同盟】次期올림픽開催地가 東京으로 決定되엿스나第一問題되는것은 世界五十餘個國의 國際的「뉴-스」通信連絡을如何한方法으로 하겟느냐가 重大問題인데 遞信省에서는 諸外國보다 以上의 正確과 迅速으로써 서-비스를 하고저 電務、工務當局은 其準備計畫을 進捗하고잇는데 遞信省의 計畫案은 다음과 갓다

一、無線電信電話網의 擴充의件 遞信當局에서는 今年度로부터 五個年計畫으로 昭和十五年에는 現在의 十一個國과의 通信을 三十五個國으로할 計畫인바 이것을 一個年短縮하야 十四年中에 完成하는 國際電話 ...

二、無線寫眞電送의件 今回의 伯林、東京間의 實驗에 自信을 어덧슴으로 各國의 申込에 應할터이며 遞信當局에서는 四個年後의 日本은 電送寫眞에만으로는 이미時代의 뒤떠러진「테레비죤」을 實現할方針으로 不遠에 專門硏究家의 會合을열고 그實現에 邁進하기로되엿다

... 米國、英國、獨逸、「마니라」、上海、香港、滿洲國의 七方面 ... 方面的으로는 陸上、水上 ...

都市對抗野球經過

第十回全日本都市對抗野球大會第三日의 第二回戰은 四日午前十時半부터 神宮球場에서 擧行한바 戰績은 다음과갓다

德島	0	0	0	3	0	0	0	0	0	0	3
名鐵	0	0	0	0	0	2	1	0	0	1	4
函館	0	0	0	0	0	0	1	0	7		8
大宮	0	0	0	0	0	2	0	0	0		2
吹田	0	0	0	2	0	0	0	0	0		2
大連	0	0	5	0	0	0	0	0	A		5A

卓球講習會開催

高麗卓球主催의 第一回卓球講習會는 來十七日부터 廿一日까지(五日間每日午後二時부터 五時까지)鐘路中央基督靑年會館에서 擧行하기로되엿는바 申請은十五日까지 同聯盟事務所로 하기를바란다하며 特히講習會費도 徵收치안코 資格도經驗有無者를 勿論하며 歡迎한다는데 講師는 同聯盟技術委員들이 擔任하기로되엿다고한다

京平水上對抗

京城最終豫選會

우리水上界 待望의一戰! 第一回京城對平壤 水上對抗戰은 本社平壤支局後援下에 來十六日午後一時부터 平壤府營풀에서 擧行할터인데 이에出場할 京城代表選手의 最終豫選會는 來九日午前九時부터 京城풀에서 擧行할터이라한다

「팟시스트」와나치스 靑年學生交驩

【伯林올림픽스타디움三日同盟特派員發】伯林올림픽大會에 際하야 伊太利의「팟시스트」靑年學生團은 特히 五百名의 代表團을 伯林에 派遣하야 나치스靑年學生團과 親善交驩하고 兩國國交의 親善에 邁進하엿는데 이에 對하야 히틀러靑年團에서는 九月五日 나치스學生代表를 羅馬에 派遣하기로되어 二日午後의 幹部會에서 그人員을 決定하얏다

今日의올림픽

◇第五日(火曜)

▲陸上競技(올림픽스타디움) 百十米障碍第一豫選(後六時半) 棒高跳豫選(後六時半) 千五百米第一豫選(後七時) 五萬米競步決勝(後九時)

世	4時間26分41秒	부룬(諾)
올	4時間50分10秒	그린(英)
優勝候補	4時間26分41秒	부룬(諾)
	4時間35分53秒	리월다(伊)
	4時間36分4秒	그르도아(佛)
	4時間37分51秒	우아라이셋(芬)

二百米準決勝(後十一時) 投圓盤決勝(後十一時)

世	53米10	쉬레델(獨)
올	49米49	안다ー손(米)
優勝候補	53米10	쉬레델(獨)
	53米10	안다ー손(米)
	52米10	벨드ー(獨)
	52米73	카란ー펜다(米)

女子八十米障碍豫選(後十一時半) 棒高跳決勝(午前零時)

世	4米43	와로프(米)
올	4米31	미라ー(米)
優勝候補	4米40	그레ー바(米)
	4米36	메도ー스(米)
	4米35	세프톤(米)
	4米34	大江(日)
	4米30	西田(日)

百十米障碍第二豫選(前零時半) 千五百米第二豫選(前一時) 女子八十米障碍準決勝(前一時半) 二百米決勝(前二時)

世	20秒3(直線)	오웬스(米)
	21秒0(曲線)	오웬스(米)
올	21秒2(曲線)	토ー란(米)
優勝候補	21秒0	오웬스(米)
	21秒1	로빈손(米)
	21秒1	오세달프(米)

▲하키(하키ー場)豫選(前零時半) 日本對米國 ▲蹴球(伯林球場) 第一次試合(前一時) ▲요트(키ー르港)(後六時半) ▲近代五種後五時 ▲劍術後五時體育館 ▲뽀로前零時뽀로競技場 ▲重量擧(力技)前四時獨逸館

◇…伯林올림픽大會實景無線電送寫眞=世界올림픽第一日最初의競技 百米第一豫選의스타ー트光景(左로부터카라우、스토련벨그、吉岡、평介紹選手)

伯林올림픽 第四日戰績

二百米豫選經過

【올림픽스타디움四日同盟特派員發】올림픽大會第四日에行한 二百米第一豫選經過는 다음과갓다

【二百米第一豫選】▲第一組1뵈안워렌(和)二一秒四2베스뵉(匈)二一秒一 3谷口(日)二二秒二 ▲第二組1오센달프(和)二一秒七2사인(獨)二二秒F 3헤니론(英)二一秒一 ▲第三組1오웬스(米)二一秒一(올림픽新記錄)2올(加)二一秒六 3네롤맨(獨)二一秒八 ▲第四組 1호벨(加)二二秒F 2비ー네스(匈)二二秒三 3리라ー(墺)二二秒四 ▲第五組1한나(豪)二一秒八 3카리안(南阿)二一秒八 ▲第六組 1로이너센(南阿)二一秒八 3스트렌드발(芬)二二秒六 ▲第七組 1빳카ー드(米)二一秒二 2그린벨크(南阿)二一秒八 3슈타인메츠(獨)二一秒九 ▲第八組 1로빈손(米)二一秒六 2람미스트(芬)二二秒一 3호프마이스텔(獨)二二秒三 (第四組에出場한 鈴木選手는 棄權하엿다) ... 一秒二 三리라ー(匈)二二秒

走幅跳兩選手入選

【올림픽스타디움四日同盟特派員發】走幅跳에出場한 田島直人選手는 七米一五로豫選에 通過하야 午後에行할決勝에 參加케되엿다

【伯林올림픽스타디움四日同盟特派員發】走幅跳에 出場한 田島、原田選手는 七米一五의 豫選記錄을 突破하야 午後에行할 決勝에 參加하기로 되엿다 그리고 足部負傷으로落選하엿다

마라손의孫、南兩君은 各國選手驚異의的

伯林에서 鄭商熙發信

前略…이곳 올림픽村에서 平和의 聖戰을 가다리고잇는 우리들의 七選手는 元氣旺盛한 가운데 各其 猛練習을 거듭하고잇습니다 其中에도 孫基禎、南昇龍兩君은 이번「마라손」엔트리三人中에서도第一 元氣가잇서 各國選手들의驚異의的이 되여잇습니다 요사이孫君은 自信과 好記錄를보이고 잇스므로 마라손當日에는 優勝 入賞될줄로 밋습니다 올림픽大會以來의 驚異「마라손」코ー스는 고 말하나 우리選手들의 練習後의 實感을 드르면 조곰도難關이라고는 생각치안는다고합니다 이얼마나 우리를 기쁘게하는것인지! 世界各國에서 雲集한 勝將들도 우리孫、南兩君에게 覇權을 빼앗길가 모다들두려워하고 잇는듯합니다 그리고 籠球는 抽籤結果로 第一回戰에서 瑞典軍과 對時케되여 金容植君이 孤軍奮鬪할것으로 期待됩니다 李奎煥君도이곳에 온後 元氣는 더욱旺盛하야 意氣滿面합니다 그外에도籠球選手의 廉殷鉉、李性求、張利鎭 三君外代表團一行은 七月二十二日 伯林市를떠나「부라메스트」로가서二回戰을行하고 維也納에돌녀다가 二十七日頃에는 伯林에도라올豫定이랍니다 우리의三選手가出戰하는 籠球代表團은 第一回戰에 好敵手中國과 對時케된것은 우리우리의興味를 이끌고잇습니다 此一戰에이기다면 다음은先進米國이잇슬뿐이며 ...

부라질代表和解出場

伯林市「호텔·롯시셀오프」에서 【伯林올림픽스타디움三日同盟特派員發】부라질選手團은 모처럼 伯林까지와잇스면서도 所屬體協會로부터 부라질올림픽委員을 不認定하야 紛擾를惹起하야 드되어全員이 大會不參加를決定하고잇든바 三日에와서 伯林의仲裁로 부라질體育協會의調停으로 各種目에 限하야「스트·멤버」를「픽업」한後 大會에 參加하기로決定하엿다 그리고 蹴球에는 부라질選手가 出場하기로되엿다

은豫想外로 實力이 低劣합니다 이籠球팀이 이곳에다어서비록練習試合이지만 連二次快捷하여서 우리들의期待와囑望은 크다이니 할수업습니다 오늘은이만치消息만傳하오며 다시通信하겟습니다。七月二十日【寫眞은鄭商熙氏】

世界올림픽最强陣 米國代表의歡送譜

【뉴욕發同盟】米國올림픽代表三百三十四名一行은 지난七月十五日 特別올림픽號〃맨핫탄〃號에 乘船하야 數千市民의 熱烈한 歡送裡에 뉴욕을떠나 獨逸하부르크港을 向하야 出征하엿다 寫眞上은 甲板에서 출발기록하고노는 人氣選手오웬스(黑人)選手、下는 大五輪旗를 틀너잡고 甲板우에 모여선一行

列車에서跳下 두다리가折骨

【開城】지난이일 오후六시십오분 경성에서 출발한 일○열차가 개성에 거의 다다렷을때에 서서잇든 개풍군 중서면 려릉리(開豐郡中西面麗陵里) 왕성옥(王聖玉)(三二)이가 뛰어나리려다가 고만 실수하야 두다리가 차바퀴속으로 드러가서 절골(折骨)이 되엿슴으로 즉시 부근 도립의원에 입원시키고 응급수당을 밧게하야 생명은 건질모양이라한다

十日부터五日間을 赤痢豫防週間으로

京城을비롯하야仁川開城에서實施 氷菓類도徹底히取締

경기도내에서 경성을 비롯하야 인천(仁川)개성(開城)등지에서 적리(赤痢)환자가 작구 발생하는 상태이므로 경기도 위생과에서는 오는 십일부터 십오일동안을 적리예방주간(赤痢豫防週間)으로 정하야 예방약을먹도록 장려하고 『아이스·케잇』『아이스·크림』을 엄중히 취체하고 각사립병원의 전염병실(傳染病室)과 보통병실(普通病室)등의 시설을 검사하고 뒤ㅅ간의 대변 소변치가는것을 부청에하야 엄중히 주의시키고 집집마다 호구조사하듯이 하야 전염병자의 잇고 업는것을 조사하기로 되엿다한다

富川郡下農牛 氣腫疽病流行

【仁川】농번기에 농우의전염병 부천군(富川郡)서곶면(西串面)연수리(延壽里)상배일번지 장운룡(張雲龍)의 황소가 지난이십일을연금하사앗다 이미인천서에서는 죽은소의 육편(肉片)을 도위생과에보내여 시험한결과 맛참내기종저(氣腫疽)병으로 판명되얏다 이병은 가축에서성하는병일뿐아니라 전염되는즉시로 급사하는병이라 인천서흥(共)위생주임 일반농촌의 피해를방지코저 서곶면(西串面)일대 오백삼십여마리소에게 예방주사를 시행하리라는데 우선오는륙일에는 이백사십두에만시행하야 방역에가장노력하리라한다

最後의優勝旗는 新活팀에서獲得

南大門自動車팀은惜戰惜敗 畿湖蹴球大會終幕

【永登浦】지난일일부터 영등포방학정 주택지(永登浦放鶴亭住宅地)에서 개최된 영등포체육회(永登浦體育會)주최와 조선일보 영등포지국(朝鮮日報永登浦支局)후원의 제삼회 긔호축구대회(第三回畿湖蹴球大會)는 예정과가티 제일 제이량일간 예선전을 무사히 마치고 제삼일에 준결승 결과 결승전이 잇슨결과 최후의승리는 시내 청엽정(靑葉町)신활(新活)팀으로 도라갓는데 무엇보다도 재작년이래 두번이나 거듭하야 연전연승한 강호 남대문자동차학교(南大門自動車學校)팀에 대한 설욕전이라 할만한 가장 긴장미를 띄인결전인 만치 수십개의 우승긔 단긔 사긔등오색이찬란한 기ㅅ발이 나붓기는 회장에 주위에는 무려일만여명을넘는 응원단 관중으로써 인해(人海)를 일우고 천지를진동케 울녀나오는 영창악대(永彰樂隊)의 류량한 음악소리에 이십일팀에 삼백여선수들은 일동원긔가 왕성하야 최후까지 분전한결과 강호를자랑튼 남대문자동차학교(南大門自動車學校)도 혈맥(血脈)팀과의 준결승전에 두번이나 연장전을 거듭하야 악전고투하엿스나 끗끗내승부를 결하지못하고 결국추첨에들어가 불행하게도지고말엇다 이리하야 동빙고(東氷庫)팀을 격퇴식힌 신활(新活)팀과 혈맥(血脈)팀과의결승전이 열리엿는데 이대일의스코어로 신활팀이 승리케되야 오후팔시 대회장남정채(南廷彩)씨로부터 우승긔수여가잇슨후 근년에드문 대성황리에 폐회하엿다

(寫眞 上은優勝旗授與光景 下는優勝한新活팀)

開城十三町을舞臺로 一年間竊盜行脚

判明된犯行件數만九十七件 被害總額七百餘圓

【開城】백건이라는 놀라운 범죄긔록을 남기고 드듸어 악운이 다하야 체포된 소년이잇다 그는 원주소를 부외 청교면 덕암리(府外靑郊面德岩里)일백팔십구번지에둔 신채순(申采淳)(一七)이란 『룸펜』소년으로 작년시월부터 전과범인 부내북본정(北本町) 한영근(韓永根)(二○)을 알게된것이 동기로 그들은 절도행각을 하기로 굿게 약속한후 금년 팔월일일까지 약일년간을 하로도 빠지는날이업시 절도질을 감행해왓다는데 그들은 개성 십삼정(十三町)을 절도대로삼고 시내 각상정골목골목마다 숨어잇는 부자ㅅ집을 차저단이며 담을넘어 들어가 부억에든 놋그릇을 절문으로 절취하야다가 유긔제작소와 또는각전당포등에 전당잡혀 돈을 물쓰듯소비하여 오든것인데 판명된 범행건수만도 구십칠건이라하며 피해액이 칠백여원에 달한다한다 그런데 그가 체포되기는 지난이일새벽 네시경에 그동리 리유명(李有明)의집담을 너머 역시 네마리의닭을도적해다 부내 도교시장(道橋市場)에 판것이 동면주재소원에게 발각되자 즉시 체포하야다가 문초한결과 전기와가튼 여죄범행사실을 자백하얏다한다

弘智、新營兩洞里 合同하기로決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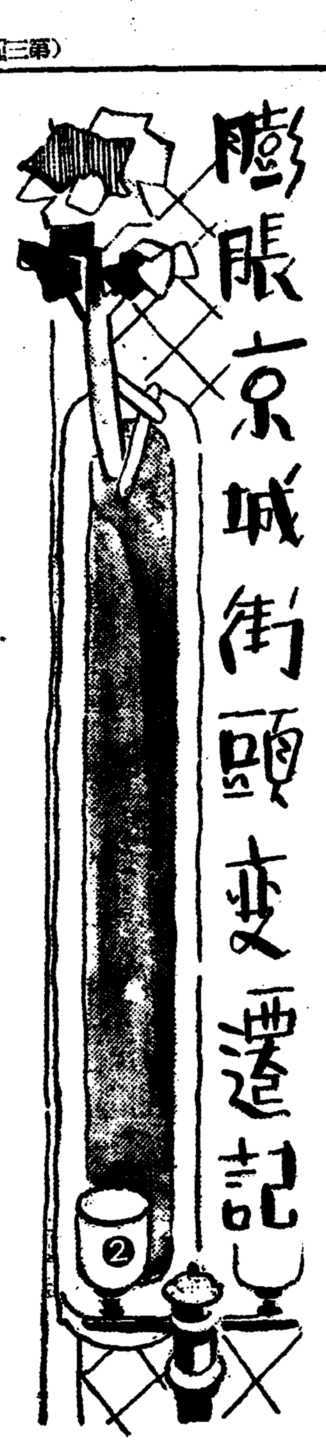
二日午後付岩町會에서

시내 창의문(彰義門)밧게잇는 부암정회(付岩町會)에서는 지난 이튼날 오후 일곱시부터 그동리 원창학원(元彰學院)안에서 홍지(弘智)、신영(新營)두동리와 합동하겟는가? 안켓는가? 의 평의회를열고 긴시간에 빠치여 갈론을박으로 토의한결과 정회비부담경감상으로 보아 단연합동하는것이 올타는데 대다수의 의견이 합치되여 합동교섭위원으로 리근배(李根培)씨외 네사람을 선정하고 가튼 열한시쯤되여 폐회하엿는데 본시 문제가만튼 합동문제이니만치 아프로 그들의 교섭결과 여하로는 다시 상당한 파란과 분규를이르킬것으로 보여서 주목된다고한다

阿片을葡萄糖으로 속여서판中國人

仁川署에一網打盡

【仁川】『물핀』의모양이 포도당과흡사한것을 기화로하야 경기도일대에 마약을공공연하게 판매한중국인——인천부(仁川府)화방정(花房町)손세합(孫世合)의자기집이 중국인가의 중심지대에 잇는것을기회로하야 또한『물핀』의모양이 맛치 포도당과가튼것을리용하야『물핀』을포도당이라고속이여 시내시외로 공공연하게판매하얏슴뿐아니라 중독자의 소굴이되여잇다는 정보를접한 인천경찰서에서는 지난 삼일새벽에 전기마굴을습격하야 주인외에사명의 중국인을 체포한후방금엄중취조중인데 그들은 비단 인천뿐만아니라 경성을중심으로 각지로리레식판매법을 사용하야 그외루자가수십명에 달할모양임으로 이서에서는 계속하야 관계를 문초중이라한다



洋臭나는골목으로 近代文化의醞釀地

梨花、培材兩校와領事舘放送局이聳立 人家는稀少코地域만廣大

貞洞篇

오늘은 정동(貞洞)골목을 한번 들러보자 아마 넓은 장안에서 정동처럼 인가는 적고 그대신 터전은 넓은 곳이 별로 업슬것이다 서울와서 서양사람이 사는데가 어데냐고 뭇는 사람이 잇다면 누구든지 대개는 정동을 가라치게 될만큼 오래전부터 이동리에는 서양사람들이 터전을 만히 차지하고 산다 더욱이 쏘베트사회주의련방공화국령사관(社會主義共和國領事舘)과 영국령사관과 미국령사관등 각국 령사관들을 비롯하야 리화학교관계자 씽거재봉공사원들의 주택들이 대개 이동리에 자리를 잡고 잇다 그리고 서양 각국사람들이 모혀 노는 구락부도 여긔에 잇서서 순서양식『땐스』기타 여러가지 사교(社交)와 오락의 장면이 버러지는 것이다

……◇……

그래서 정동골목을 지나가게 되는때는 『빠터』냄새와 빵굽는 냄새가 코를 쿡쿡 찌르게 된다 이들 각국령사관들은 대개 한국시대에 창설된 공사관(公使舘)들을 이엇든것으로 합방이후부터 모다 령사관으로 변경된것이다 한국말년에 여러가지 풍운이 이리 저리 급박하엿슬때에는 이들 외국공사관을 에워싸고 여러가지 연극을 비저 내고 긔괴한 판국을 가지게 되엿든것이다 더욱이 현재의 로서아령사관에서는 당시 고종황제께서 파천(播遷)까지하신일이 잇섯스며 한국을 사이에 두고 숭강이 이러나게 되야 결국은 저 일로(日露)대전쟁까지 비저내게 되엿든것이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 그공사관 자리에는 혁명로서아 즉 쏘베트사회주의련방공화국의 낫(鎌)과 『함마』로써 교차한 붉은 긔ㅅ발이 휘날리고 잇스니 그동안의 변천에 이와가티도 아주 딴판으로 달라진 사실은 드물것이다

……◇……

더욱이 우리 조선사람으로서 이즐수업는 사실은 오십여년의 력사를 가지고 만흔 총준(聰俊)들을 기루어낸 리화녀학교(梨花女學校)와 배재학교(培材學校)의 존재이다 이두학교가 서양사람들의손으로 건설되여 오늘에 이르든 동안에 초긔(初期)에잇서서는 세상의 리해업는사람들로부터 당치도안는 비난과 홍도 만히던지게 되엿든것이다 그러나 오늘에 이리화학교와배재학교의 붉은 벽돌집을 바래보고 누구가 경의와 찬양의뜻을 표하지 안흐리요

……◇……

정동은 옛날에는 나즈막 한산(山)이엿든것이다 산을 서양사람들이 터를 닥거가지고 넓게 차지하게된것인데 아즉도경성중앙 방송국(放送局)이 잇는곳은 노픈 언덕으로 여긔에올라서기만 하면서울의 넓은 시가가 눈아래 구버보이고 서늘한바람이 흉금을 시원하게한다 이방송국터는 옛날에는 정릉(貞陵)이 잇든 곳으로 그뒤에 어떤 대관(大官)이집터를 정하고 산일도잇든 곳이다 째·오·듸·켄를 한번 무선전파로(無線電波)로 던지게되면 머나먼동서각국에 이곳 명기(名妓)의 가야금(伽倻琴)소리를 들려 줄수잇고 독일(獨逸)『베르린』올림픽에서『히틀러』가 연설하는 웅변도바로 한자리에서 듯는것과 가튼소리를 분명히 드를수도 잇다 이방송국이 건설된것은 쏘베트사회주의련방공화국령사관이 붉은 긔ㅅ발을 날리고 그엄연한 존재를 나타내고 잇슴과 함께 특별한 변천의 사실로 우리들의 눈에 뜨이는바이다

【사진은 상은중앙방송국 하는정동골목】

味の素 아지노모도 登錄商標

술은 마시던지 안마시던지 아지노모도를빼면 입맛이나지 안는다

味の素本舖 株式會社鈴木商店

萬腫速治 종종에는 한씨고약 韓氏膏藥 全鮮藥店販賣

本舖 中城韓藥房 平壤府海町九四番地

矢野

矢野テント商會

本社京城販賣所 電本(2)一五九七番

團成社 映畫殿堂 全鮮第一

八月二日封切(五日間) 每日三回 午前十一時半 午後三時四十分 夜六時半 階下三○、二○錢 階上五○、三○錢

◆廿世紀폭스超特作映畫 百萬番의感激 (Thanks a million)

◆廿世紀폭스超特作映畫 空中을나는音樂 (Music in the Air) 그로리아·스완손 主演

◆日活超特作映畫 追分三五郎 黑川彌太郎 主演

東洋劇場 西大門町 電光三二番

京劇『新舊衝突』二幕

悲劇『愛慾』二幕

一、『名妓黃眞伊』

浪花舘

8月5日より8月11日まで 上映時間表

結婚の條件 11、5-0 3、2-0 7、1-0 新人 柴田萬子 主演

荒川の佐吉 1、2-5 4、5-0 8、4-5 林長二郞 花見 主演

入場料金 40錢 60錢

中央舘 永樂町

曉の爆音

夜明け鳥

野球大當り バスター・キートン 主演

産業

各道에技術者配置코指導統制
監督局設置는時期尙早라고
總督府의鑛業助長策

鑛種이 豊富한것 就中 日本內地에서 産치안는 特殊重要鑛物을 産出하는것等으로 一層重要性을 가진 朝鮮鑛業界의 發展은 近年 눈부신바가잇서 이미 年産八千萬圓을突破하고 一億圓을 바라고 躍進을 繼續하고잇는데 이情勢에 對應하야 總督府殖産局에서는 鑛業行政의 刷新에 關하야 硏究를 進行하고잇는바 日本內地에 模倣하야 鑛山監督局을 設置하고 鑛業行政의 統一整備와 技術의 向上指導를 圖할것이라는 要望이 一部에 提唱되고잇스나 殖産局은 鑛山監督局 設置는 時期尙早라하야 明年度에도 그豫算을 要求치안헛다 即 當局이 보는바로는 監督局을 設置하면 全朝鮮적어도 數個所를 要하야 相當히 多額의 經費를 要할뿐만아니라 日本內地實情을 보드래도 이로統一的指導統制를 行하야가기는 바라기 어렵고 또 朝鮮으로서는 아직 그必要를 痛感치안는다하야 차라리 各道에 優秀한技術者를 配置하고 이를總督府鑛山課에統一하는便이 技術指導行政事務의 敏活을 期함에 가장實際的이라는 見地에서 明年度豫算에잇서서 技師 技手 技術雇員等二十餘名의 增員을하야 이를 各道에 配置할方針으로 꼭 그實現을 期하야 躍進朝鮮鑛業의 發展에 拍車를加할 意向이다

各種産業의統制策硏究
明年度豫算에經費를要求

朝鮮內産業의 發達에伴하야 日本內地産業과의 摩擦이 漸次激化하는 傾向이잇슬뿐만아니라 朝鮮自體로서도 業者間의 競爭이 漸次 表面化하고잇서 各種産業의 統制는 注目되고잇는데 總督府商工課에서는 課內에 産業統制係를 新設하고 重要産業統制에關한 法令制定準備 肥料業統制關係 工業組合令施行準備 自動車製造業 그他一般産業의 統制問題를 硏究할方針으로 明年度豫算에技師一、屬一、技手二의 增員을要求하기로되엇다 그런데 現在統制를 要하는것으로 드는것을보면 肥料、세멘트、電球、琺瑯鐵器、고무靴、洋襪、綿絲布、絹布、麻布、染色加工、鹿子紋、카ー바이트、石綿、燐寸、陶磁器、燐土、黑鉛、木炭、小麥粉、煉瓦、코ン스타ー치、水飴、白米等이라한다

江原道人蔘栽培
當局이指導奬勵

江原道는 氣候風土가 人蔘栽培에 適當하야 自來로 本道에서 産出하는 人蔘은 品質優良으로 各地에서 好評을 밧어왓는데 近年에와서는 栽培가 消極的으로 되기때문에 널리 宣傳이되지못하얏스며 局部的으로 栽培함에 不過하야 其生産高가 僅少함을 遺憾으로 생각한 當局에서는 此를 大大的으로 奬勵키爲하야 栽培法을 改善하는同時에 積極的으로 指導를 加하야온까닭에 最近에와서는 成績이 漸次로 良好하야저서 昨年度에는 現在道內의 栽培面積十一萬九千百三十五坪 栽培人員三百八名에 達하고잇스며 一坪에對하야七十錢의 生産高가잇서 다른作物에比하야 收入이만흔關係로 今後더욱有望하다고한다 人蔘栽培別을보면 春川及江陵以南은 慶北榮州種蔘을 栽培하고 其以北은 開城蔘을 栽培하고잇다 今後當局에서는 더一層 此에對하야 積極的奬勵를 加할터이라는데 各郡別로본 栽培面積及人員(昭和十一年六月末)을 調査한바에依하면 다음과갓다

郡名	栽培面積	人員數
春川	二〇〇坪	四名
麟蹄	六、六八三	二八
楊口	一、四一七	六九
淮陽	二、七六〇	一四
高城	五、〇〇〇	一
江陵	一、〇二二	七〇
襄陽	七五〇	二九
三陟	一八五	一七
平昌	九〇〇	一
寧越	一、一七三	四
原州	一、六一〇	一
橫城	四、一〇〇	一
洪川	三、一〇〇	一三
華川	三、二九〇	三三
金化	二、九九三	三
金城	一、五五五	一
鐵原	九三〇	八
平康	一、三四九	一
伊川	四五、〇一八	七
計	一一九、一三五	三〇八

세멘트界의 紛爭遂解決
互讓으로協定成立

【東京電話同盟】세멘트聯合會對小野田間의 二個年에 亘한紛爭解決協定文은 三日午後發表되엇는바 右는 今後 行할 細目交涉의 基礎가될 大綱을 示한것으로 細目은 兩者協調의 精神에 맛기어 今後繼續하야 各地別出荷比率販賣價格等의 折衝을 하기로되어잇다 그런데 本協定의 特色은

一、小野田側은 압서 主張한增産設備에 對한 加重制限遡及의 要求가 撤回되다

一、이에對하야 聯合會가 主張한朝鮮에 잇서서의 減産率適用의 要求가 撤回되고 이를出荷數量制限에 依하야 實効를 期하고잇다 이에 依하야 日本內地外地의 減産率의 相違가 表面化하는것을 巧妙히避하야 商工、拓務兩省、朝鮮總督府를 비롯하야 關係方面의 面目을 세웟다 그런데 本協定은 重要産業統制法이 外地에서도發動되는것을 前提로 成立되고잇는것은 他産業에 對한 影響으로보아 자못 注目되고잇다

桑田追肥

對英輸出電球 二割을要求
日本內地側의承認如何不拘 朝鮮側은輸出을斷行

對英輸出電球에關한 朝鮮側의對英協議는 燈泡組合長等 當業者와 總督府商工課에서 一、二의 兩日에亘하야 協議한結果 朝鮮側에서는 對英輸出에 關하야

家庭用球──二割
그他球──二割

의 各數量을 要求하기로 決定하고 商工省及 日本內地側의承認 如何에 不拘하고 이數量을目標로 統制잇는 輸出을 行하기로되엿다

九味浦硅砂開發復活

[illegible]硝子에서는 一時 中止한 黃海道九味浦의 硅砂開發을 이지음 復活하야 八九兩月에 六千噸을 採掘하기로되엇다 朝鮮의硅砂에 鐵分의 含有가 多하야 缺點이라하나 下級硝子製造에는 價格이 低廉하기때문에 有利한狀態이다

日用商品市況

四日 京城市內 海産物市況을보면 大體 다음과갓다

▲암치 活況 암치는 이季節 海産物의 王者로 出廻最盛期이어서 인제로부터 入荷가 漸增하며 賣行도 顯著하야 다른 海産物을 壓倒하는 狀態이다 今日 市勢는 한손(二尾)에 對하야 一圓으로부터 三圓五十錢가량이다

▲明太 不勢 乾明太는 北海道産、朝鮮內産共히 入荷가 不振하며 더욱히 不需要期이어서 賣行도 不良하야 上品이 多少賣買되는 形便인데 市勢는 한쾌(二十두름)에 對하야 廿圓 乃至 廿二圓五十錢가량이다

▲굴비 格閑散 굴비는 거의 出廻의 終末을 보게되야 新入荷도 殆無하며 이미 入荷되엇든것이 多少 賣買되는 形便인데 今日市勢는 한두름에 對하야 六十錢乃至 六十五錢가량이다

▲大口魚 閑散 乾大口魚는 需用期를 벗어나서 食料的需要가 떠러진 關係로 賣行이 全然 不振한 狀態로 今日市勢는 한마리에 對하야 二十六錢가량이다 그런데 이乾大口魚는 秋節이 當到하여야 賣行이 漸次 回復되는것이다

▲미역 好況 미역은 今年 豐作이어서 新産品의 入荷가 逐日 增加되고잇는바 이에 對하야 賣行도 良好하야 活況을 呈하고잇는데 今日市勢는 한손(二十입)에 對하야 二圓五十錢乃至二圓六十錢가량이나 出廻가 漸增되는만큼 先低가 豫想된다고한다

▲메르치 不振 메르치는 依然 下落勢의 狀態이며 多少 入荷가 잇기는하나 今後 그渴望이 잇다 例年 馬山、釜山、木浦、方面에서 入荷가 만흐나 그런데 今日市勢는 一斤에 對하야 一圓五十錢乃至 一圓三十錢가량이다

平北水産界에快報
大和島附近一帶에서 前에업든眞鰤를漁獲

平北道의 海底에서 眞鰤는 아직漁獲된 일이업슴으로 全然업는것으로 認하고잇던바 數日前부터 鐵山沖 大和島附近一帶로부터 一貫五百匁 乃至 三貫가량되는 眞鰤가 잡혓다 이것은 갑이 빗사므로 이것을 몰은漁村에서는 크게깁버하야 大和島附近에는 多數의 漁民이 出漁하야 盛況을 이루고잇는바 이快報를 들은平北道水産課에서는 다음과가티말한다

眞鰤가 本道에서 잡힌것은道水産史上의 새로운일이다。目下漁民들은 不完全한 漁網으로 漁撈하는 모양인바 鰤網의大謀網이나 鰤大式網의 本式網으로 잡으면 더잘잡힐것이다云云

平壤塗工會合 組合組織活動

【平壤】都市의 發展과 家屋의美化工作이 進展함을따라 「페인트」의 需要와「페인트」塗工의 技術을 要求하게되어 平壤府內에서도 信用과技術을 兼備한塗工을各方面에서부르게되엇다 그런데 月餘前부터 塗工數十名이 團結하야 平壤塗工組合을組織하고 組合事務所를 府內巡營里에 設置한後 組合員互相間의 親睦은 말할것도업고 한거름더나아가 技術을發揮하며 信用本位로서 技術者의 참다운精神을 建築界에 表現하기로되어 압흐로의 活動이 期待되며 또 購買部도 設置하야 低廉하게原料를購入하야 需要者에게 應하게되엇다 한다 그리고任員은다음과갓다고한다

▲組合長崔泓根 ▲總務金貴吉 ▲財務金仁洙 朴成道 ▲監査李載春 金辰龍 徐致雲 ▲書記金在明 皮龍洙 ▲評議員崔仁錫外十名

세멘트協定
發表된成文內容

【東京電話同盟】세멘트聯合會와 아웃사이더 小野田外 二、三社와의 協定成立은 午後一時半丸之內常磐에서 發表되엿다 이에依하야 昨年秋 以來의 세멘트界의 混亂은 終幕을 告하게되엿는데 協定成文은 左와如하다

一、生産設備擴張對策의件

一、日本內地 세멘트生産業者의 日本內地에잇서서 生産設備擴張에 關하야 約定한것은 左와如함

一、昭和十一年 六月十五日 後野社外 十七社의 增産計畫中止에 關한 協定은 期間滿了後 다시 六個月 延長키로함

一、昭和十二年 六月二十七日 以後에 잇서서는 세멘트製造業改善委員會 申告濟에 基하야 生産設備의 擴張을 認定하나 擴張할수잇는 生産設備의 能力은 同日以後 三個年에 잇서 當該會社의 同日現在의 生産能力二割을 超過함을 不得함 但、이二割이 八千噸이 未滿되는 會社는 八千噸以下의 能力의 擴張一基分을 限하야 增設함을 得함

前項에도依하야 擴張한 生産設備에 對하여는 그据付期間이 終了되는 翌日부터 左記의 控除制限을 適用함

第一年 七割
第二年 四割
第三年 三割

一、速히 以上의 實施를 出願하고 이와 倂行하야 第一、第二項目을 合한 새로운 申請을 하기로함

一、日本內地、外地(朝鮮、臺灣、關東州) 又는 其一部에 잇서 右生産設備擴張에 關하야 重要産業統制 第二條의 發令이 업슬境遇法又는 同法 第二條 第二次의 發令이 업슬境遇는 本協定을 廢棄함을 得함

▲生産設備擴張對策의件 政府의 生産統制에 關한 方針에 則하고 또 朝鮮의 實情을考慮하야 昭和十一年度에 關하야 이를左와如히協定하엿다 그리고 十一年度以降에關하여도 이에準한 新協定에依하기로함

(昭和十一年度十一年十一月부터 十二年十一月까지) 朝鮮內 세멘트需要를 六八〇、〇〇〇噸으로 想定하고 其中二〇〇、〇〇〇噸은 日本內地業者로부터 朝鮮에出荷하고 四八〇、〇〇〇噸은 朝鮮業者가 이를 出荷함 朝鮮業者의日本內地에對한 出荷數量은 同年度에잇서 一〇〇、〇〇〇噸으로함

一、朝鮮內需要가 六八〇、〇〇〇噸보다增加 又는減少할境遇에는 朝鮮業者及 日本內地業者로부터 四八對二〇의比로서 配定하야 이를出荷함

▲朝鮮業者는 現在 朝鮮小野田뿐인데 昭和十二年度內에 朝鮮세멘트社及 淺野社가 操業을 開始할 豫定인바 兩社出荷高는 第一項第二項에依하야 各各配定出荷하기로함

一、朝鮮業者는 二乃至三의所定에依하야 其年間出荷數量制限을 受함 生産은 이에準하야 制限하되 其方法은 左와如하다

가、向後三個月間生産協定數量을 聯合會에 通知하기로함

나、生産出荷數量及 其狀況을 每月一回 聯合會에 報告하기로함

다、聯合會 派遣員으로하여금 生産出庫數量及 月末出庫數量을 調査케하기로함

라、세멘트聯合會는 來期生産制限의 調査를 命하야 出荷豫定及 實績을每月一回 朝鮮業者에通告함

一、朝鮮、滿洲間의 關係에對하여는 兩地域의 當業間協定에依함

▲最高價格改訂의件 現行最高價格의 改訂에對하여는 協定을 告하야 目下各其手續中임

▲十一月까지의 取扱의件 今年十一月까지의 販賣出荷取扱에對하여는 相互協調精神에 基하야 協議하기로함

清道購買組創立

【清道】清道新邑中央地에 創立事務所를두고 創立準備中이던 清道購買組合은 客月三十日 創立總會를열고 創立을 完了한後 組合長、理事、監事、評議員等役員을 選任하엿다한다

平南道秋蠶掃立數

春蠶에잇서서 飼育에 適宜한天候와 繭價昻騰으로 近來稀有한 好成績을 거두은 平南道農務課에서는 夏秋蠶掃立을 來十五日頃으로부터 同二十日까지에 終了할 豫定인데 今年度夏秋蠶掃立枚數는 二萬五千枚로 昨年掃立枚數보다 約二千枚의 減少라한다 그減少原因은 昨冬未曾有의 酷寒으로因하야 桑葉寒枯가甚한데다가 이번大旱災로 桑葉發育이 充分치못한데잇다 한다

忠北에서大麻增産

忠北道에서는 福田技手를 지난 十九日부터 二十九日까지 大麻의名産地인 慶北에 出張식히어 此의調査와 硏究를 進行식히어 現在까지 在來種 五萬貫에 不過하는 大麻를 向後十個年間에三十萬貫으로 增産식힐計畫을 樹立하고 其品種은 全部를 改良種인 栃木種을 普及식히기로되엿다는데 今年은 初年인 만큼 其剝皮作業에 要하는 改良釜와 金引器等을 各郡農會로하여금 栽培部落又는 一定한 個所에 集合共同作業場을 設置케하고 同作業을 充分히 指導하기로되엿다한다

入荷는減少나 消費는增加
七月中京城水産物取引狀況

京城府營水産市場에 七月一個月동안 水産物의 드러온 斤數는 九萬四千二貫으로 前年七月에 比하면 七百四十四貫이 減해젓다 그러나 賣渡額은 十二萬八千一百九十四圓六十七錢으로 前年七月에 比하면 一萬八千四百二十圓三十八錢이 增加되엿다 十貫에 對한平均價格은 十三圓六十四錢으로 前年七月에 比하면 二圓五錢이 더 비쌋다 七月中에 賣買된 主要한 生鮮은 鯛一萬九千六百十九圓 鰈一萬五千七百二十四圓 鯖一萬二千八百六十圓 도미七千五百三十三圓이엿다

大邱組合銀行 預金貸出狀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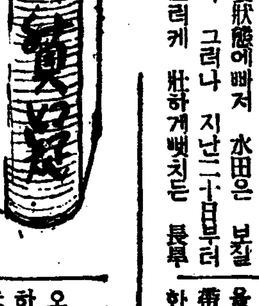
【大邱】最近大邱府內組合銀行에서는 갑작히 預金보다 貸出이 激增되엇다 大邱府內組合銀行六月末日現在 總預金이 一千四百五十四萬四千餘圓인바 貸出은一千六百十八萬三千餘圓에 達하야 預金보다 一百六十三萬九千餘圓이 超過되엇는데 前年同期에 比하면 貸出에잇서서 二百二十三萬二千餘圓이 激增되엿다고한다 預金減少原因을 드건대 低金利政策實施以來로 銀行의 預金利子가 싸진관계로 預金이 갑작히 減少된것이라한다

上半期元山港 牛移出數增加

【元山】今年度上半期元山移出牛檢疫所를거쳐 日本內地로 移出된牛는 二千十頭로서 昨年同期보다 二百三十八頭의 增加이라는데 그大部分은 敦賀港에로보낸다는바 昨年보다 增加된理由는 從來城津에서 購入하든 敦賀의 移入商人이 城津地方의牛價高로 元山에서 購入한까닭이라고한다

稻는大凶이나 田穀은豊登
永興地方의農作狀況

【永興】咸南永興地方은 繼續하야 旱魃과 暴風으로 일삼어오든 關係로 全部를移秧하야 移秧期에 移秧이四割에 不過한데 長久한 旱魃에 移植한 苗板이모다 皆黃狀態에빠저 水田은 보잘것업다 그러나 지난二十日부터는 그러케 壯하게뻣치든 長旱도 霖雨로 龍興江沿岸엔 조고마한 洪水도잇섯다그러나 一般穀物엔 何等被害가업는 形便으로 永興平野의 田穀은 數十年來드믈게보는 大茂盛을 일우워 水田地帶와 田穀地帶엔 喜悲가 相奏되는터이라고한다



問 古本及新刊雜誌商을 經營코저하오니 古本卸賣商及 各雜誌取扱卸賣店을 下敎하여주시오 (上川 一松生)

答 古本卸賣商은 京城本町二丁目 群書堂書店 明治町二丁目 金明堂書店 新刊雜誌는 京城本町一丁目 大阪屋書店內 朝鮮雜誌販賣業組合입니다

問 小生이 金商을經營하려하오나 地金에對하야 충사석이無하오며 好不好을 알수업사오니 未安하오나 충사石販賣所를 仔細히 下敎하야주옵소서 (城津一讀者)

答 京城府明治町一丁目 株式會社 京城德力에서 販賣하고잇습니다

問 小生이 硝子加工硏究를하고잇사온데 特히銀引法을알고저하오니 如何한書籍을購讀하면조켓습니가 (市外一讀者)

答 銀引法만은 參考書는업습니다 京城府黃金町一 丸善出張所取扱 中西鍍治著「硝子工藝」를 購讀하여보시오

發展途上의 朝鮮發明界
❶今年上半期成績

發明界의 消長은 産業界의 盛衰를 如實이 示하는것인데 朝鮮에서는 過去二十六個年間에實用新案 一千二百十九件、特許二百六十三件 計一千四百八十二件에達하야 年年斯界의 殷盛을보고잇스나 아직 그內容의 充實을 보이지안는다 即 右一千四百餘件中 特許十二件 實用新案百十七件 計百二十九件만이 事業化되고잇슴은 遺憾되는일이다 此等斯界에對한 施設이업서 最近當局者間에서도 朝鮮發明協會의 設立을 提唱하게되엇다 現在와가티 何等助長機關이 업슴에도 不拘하고 相當히發明件數가잇슴으로 今後助長機關이생기면 斯界의 急速한 進步發展이 잇스리라고 期待된다

그런데 昭和十一年 上半期의 朝鮮의 發明界는 內容은 따로하고라도 件數에잇서서는 그리 好績을 示하엿다고 볼수업는 狀態이다 即 다음에 示함과가티 實用新案公告六十九件 特許公告十三件 計八十二件인데 公報로써 明示된 實用新案登錄件數九十七件 特許登錄件數十六件 計百十三件이다 이제 公告된것을月別로示하면 如左하다

	實用新案	特許	計
一月	一〇	二	一二
二月	七	三	一〇
三月	一二	四	一六
四月	一三	二	一五
五月	一〇	一	一一
六月	一七	一	一八
計	六九	一三	八二

다음 實用新案及 特許의 公告及登錄된것의 內容을 擧示하면 다음과갓다

實用新案公告 六十九件

名稱	公告番號
齒車咬合調節裝置附傳動機	九七
粉末白線引具	一三八
豆粒選別機	一四五
自動物品販賣機	五六一
靴	六三六
折疊洋傘	八〇七
萬口	九四一
移動式底濾網	一、〇一八
溫突用竈裝置	一、〇七三
護謨靴	一、一七〇
害虫蒸殺器	一、一八二
法被	一、三〇九
軸承	一、三三七
投網競技具	一、五四六
『라이야』給氣『폼푸』作動裝置	一、七九八
書籍及筆記帳類表紙補强版	二、〇七五
被服防虫保形具兼服掛兼仕上臺	二、一三二
『스팀』型空氣銃	二、七五一
鍋	三、一〇七
籾摺機의給籾裝置	三、三六三
防寒長靴	三、三六三
床上便器	三、四六八
熱療器	三、五四六
照準機	三、五七二
卷取裝置	三、六七五
[illegible]	三、八〇二
浮游選鑛機의機械油滴下防止裝置	三、八八三
試錐機用錐	三、九九〇
混末機	四、〇八二
自動揚水機	四、六〇一
不凍消火栓	四、六〇二
『랄프』口金의防風裝置	四、七四五
穀類處理塔의排穀樋管廻轉裝置	四、七八一
蒸氣殺虫器	四、八八九
不凍止水栓	四、九七四
籾除芒機	五、一六八
魚油壓搾機圓筒의開閉裝置	五、二五一
귀쑤시개	五、三一九
朝鮮靴	五、五五四
鳥獸威嚇用爆音發生器	五、五五五
木炭瓦斯發生裝置	五、六一四
錠附自轉車荷物箱	五、六四六
瓦斯及空氣의混合調節裝置	五、八六七
腕卷時計紐	六、一七八
防寒靴	六、四九一
自動物品販賣器	六、五三七
燐酸凝結器	六、六二八
自動火災報知器	六、七一七
製繩機의綯捲取捲逆轉防止裝置	六、八二八
播種機	七、〇四五
日數利息計算器	七、一四二
定規	七、二五〇
扁平被覆電熱線	七、五一三
朝鮮靴	七、六四七
唐箕	七、七〇九
防寒靴	七、七六五
『카ー드』整理器	七、七九三
小型瓦斯發生器	七、九六〇
辨當用菜入容器	七、九九五
車止裝置	八、〇八四
帽子	八、一二六
讀書臺	八、四一五
自動車『라이야추ー브』保護帶	八、五七九
朝鮮婦人靴用金型	八、六五九
卷煙付燐寸容器	九、〇四〇
林檎大小選別器	九、〇五八
魚油壓搾機	九、〇九二
瓦斯厨爐用蓄熱器	九、一二四

實用新案登錄 九十七件

名稱	登錄番號
身體摩擦器	二一五、六一八
揮發用刷子	二一五、八三七
兒童用三輪車	二一六、〇二〇
雷管口挾搾機	二一六、一六七
大豆粒撰機	二一六、一七四
防寒編上靴	二一六、二三七
黑板拭	二一六、三八六
護謨長靴	二一六、六〇七
『목도』形根棚	二一六、七九三
鋪叩	二一六、八四三
『세멘트』製容器의塑造型	二一六、八四九
暖爐	二一六、八五三
防寒靴	二一六、九〇〇
穀類熱風乾燥筒	二一七、一四七
封筒	二一七、二二三
搗鑛機의搗力調節裝置	二一七、二四〇

鑛業權設定·移動

◇鑛業權設定

登錄番號	鑛種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鑛業權者住所氏名
一三一九六	金銀銅	慶南蔚山郡東面	七月十七日	蔚山郡江東面 代表者 高田虎五郎 常呂郡野牛町 高田登
一三一九七	金銀鑛	黃海谷山郡霞美面	七月十七日	延白郡銀川面 代表者 劉在衡 同 張寅衡 同柳谷面 李輔伯
一三一九八	텅스텐鑛	黃海谷山郡東村面	七月十七日	京城府武橋町 金重福

◇鑛業權移轉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鑛業權者住所氏名
九二六七	全北茂朱郡赤裳面	七月十六日	大田府春日町 戶塚莊三
七〇四九	全南寶城郡福內面兼白面	同十六日	京城府永樂町 代表者 後藤虎雄 同日之出町 志岐信太郎 同漢江通 熊城鐵三郎
五一三九	慶南山淸郡今西面	同十六日	京城府舟橋町 崔之澤 車均化
一〇七七三	平北熙川郡新豊面	同十六日	平北熙川郡新豊面 盧明晉
九七八八	咸北富寧郡延海面	同十七日	京城府新設町 全北企業株式會社 共同鑛業權者南周熙持分을 富寧郡延海面九龜新面丁天에게移轉함

黃昏 (148)
韓雪野 作 安夕影 畵

재회(再會) (八)

경재는 이야기를 하면서도가슴 그들의 기분이 잘 울리지 안음을 늣겻다。

경재의 정[illegible]가 엇저 말만 거름을 빼도는것가려 생각되엇다。

그러나 그들 [illegible] 그들의경정을 마추랴하엿다。그들도 를 경재의기분에 영합하려하엿다。

그래서 표면만은 오늘밤의 만남은 매우 원만하엿다。

경재는 려순이가 자기를 청한 리유가 나변에잇는지를 알게되고、또 자긔의 의사를 대강 말하고나서는、몃번 이러나려고 하엿다。그러나무슨까닭인지 좀처럼 그러케도 되지안엇다。

밤은 이미 느젓다。이러나지 안으면 안될시간이 되엇다。올쪽이러나서 「실례하겟소」하고나와도 조금도 례에 어그러짐이 업슬만치 이야기도 충분히 하엿다。그는 또한번 이러나랴다가 마지막으로、

「결과를보아서 다시 오겟지 할 [illegible]을 놋[illegible] 애착이 잭거버리지 안을가? 하는생각을 또 하고잇섯다。

그러나 두사람은 경재[illegible]그것을 종용하으로 붓잡으려 엇겟지만、준식이가 잇기때문에 그이상배 독독히 말할수업섯다。허나 려순은 곳그말의의미를 알수 잇섯다。

사장이 자기에게 야심을 가지고잇느니만치 경재를 경계하고 서저하든것을 그는 잘알고 잇다 [illegible] 넘어지지못하게 하려는 것에 약속할 인정이니까 사장은 어떤의미에서는 려순이가 중재을갈촌것을 퍽섭하도 생각하고잇슬것이다。그러든판에 [illegible] 경재의입에서 려순의소식이 알려지고 또 정작서 대거되면 사장의 [illegible] 조금때 배틀리지안코리라코도 밧장할수업는일이엇다。

그러나 또한편으로생각하면할욕스럽고 올란한사람의 눈이란 항상 무되어잇는거니까、해여나 하는맘으로 한번더 만나거늘바랄님도 하엿이오、따라서 정재

말슴해보십시오。나도 몰롱 꼬날은 나가겟습니다」

「네、저도 가겟습니다만、엇재면 되고안되는건 선생께 달립니다。지가 직접 사장을 차자가기는 사실 실[illegible]니다만 거왕 선생께 일임한테니 좋호든 일체 명령에 복종할의무가 잇스니까요」

그리고는 또한참 말이끈어젓다。다시더 상의할말이라고는 별로 업섯다。경재는 또한번 돌아가지안흐면 안될시간이라는것을 의식하엿다。

그는「메시나 되엇나?」하는생각을 하며 부지중 시계를 보랴다가 그만두엇다。보면 시계는 벌서 돌아간서야할시간을 가르치고잇슬것이니 시계를 보는날이면어이켜 정신업네」하고 이러나야할판이다。

그래서 그는 마즘내여래 말하기가 거북해서 안하고잇던말을 꺼내엇다。

「그런데 또한가지걱정은 내가 말하는것이 도리혀 일에 방해가 되지안켓나 하는 점니다。즉 될것도 안되는……」

경재는 악가부터도 제가 사장에게 려순의 말을 꺼내는날이면 사장이、

「너、요놈! 아직도……」

하고 한거름더 색안경을 쓰고 보지안을가? 하는생각이 잇섯다。뿐만아니라 심술구즌사장이

「요년놈들、제법 제도들세게 되러구? 좀 배불러봐라」

하고 악감정으로 려순의 [illegible] 도 어려울듯하엿다…려순은 이러케 생각하며

「그러니까 그건 선생이 말슴하기에 달린 거지요、제법 령리한체하면서도 어수룩한 사장의 심리를 조종하기에 매엿지요。그러찬어요?」

려순의말을 경재도 리해할수 잇섯다。

그러나 그리고보니 인제는참 말더할말이 업섯다。

「가겟습니다。너무 느저서 미안합니다」

하고경재는 선뜻 이러섯다。

「천만에요。밧부신데……」

하며 준식이와 려순이도 따라 이러섯다。

대문압헤 나와서 준식은 인사하고、들어가버리고 려순이만 큰길까지 따라나왓다。

「안녕히 가서요」

려순은 이러케말하고도 맥절을 떠따라왓다。

그러다가 또한번、

「안녕히 가서요」

하고는 발을 멈추고 전찻길에 진 거리를 더벅더벅걸어가는 경재를——제속말은 비처보지도 못하고 구찬은 청하나만 더달아가지고 떼어서 돌아가는 경재의뒷모양을 먼니바라보고 잇섯다。

「선생님! 안녕히 가서요」

려순은 세번재 이러케 외치고 뒤를 훌금 돌아다보는 경재의미한 그림을 바라보며 북에 떠거워지는 눈을 땅바닥에